승려 장인·불교무형문화 관심 'UP'

2021 학술·문화재 결산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무형유산조사사업 추진
안정사 '땅설법' 보존 본격화돼
색난作 보물로… 僧匠 특별전도
코로나에도 고승 조명 세미나多
문화재 보존·활용에 'IT' 접목

2021년 한해동안 학술·문화재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었다. 특히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승려 장인과 불교무형유산들에 대한 조명들이 이뤄졌다.

올해 초 조계종 문화부는 국고 1억 원을 지원받아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의 조사 및 연구는 동국대에서 맡아 예비 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그간 조계종은 불교무형유산 발굴에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08년 종단 내 무형유산에 대한 실태 파악과 종목 조사를 한 바 있다. 2013년 12월에는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을 제정해 사찰과 단체가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을 종단 차원서 지정해 보존에 나섰다.

조계종이 올해부터 추친하는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사업'은 불교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형성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조계종 문화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재 전승 상황 등을 확인하고 문헌을 통해 실전된 무형유산들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삼척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을 통해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형 속강(俗講) 땅설법의 보존을 위한 논의들이 한해 동안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2021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에 (사)무형문화연구원이 제안한 '안정사 땅설법을 통한 한국의 속강 문화 복원 연구'를 선정했고, 이에 맞춰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와 시연행사들이 열렸다.

삼척 안정사의 땅설법은 현재까지 전승되는 동아시아 유일의 속강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8년 학계에 알려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 인물의 일대기를 강(講)과 창(唱)으로 전달하면서, 때론 그림자극, 인형극, 가면극, 역할극 등 다양한 민속 연희들을 동원한다. 이를 통해 불자들의 교리학습과 아울러 일반인들 대상의 포교를 목적으로 한다. 땅설법은 동아시아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속강인 만큼 국가·시도 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색난 스님의 작품 4건. 사진 위에서부터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김해 은하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 △구례 화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이에 대해 김형근 전북대 연구교수는 "안정사 땅설법은 종교의례를 넘어서서 전통예술적 측면에서도 매우 주목되는 무형유산으로 동아시아에서도 유일한 속강"이라며 "이 같은 소중한 무형 문화의 국가·시도 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승려 장인들이 조명된 점도 눈길을 끈다. 승려 장인은 전문적인 제작기술을 지닌 출가승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여러 분야의 승려 장인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신앙의 대상인 부처를 형상화하는 조각승(彫刻僧)과 화승(畵僧)이 중심이 됐다.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으로 협력해 불상과 불화를 조성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으며 기술을 전수했다.

대표적인 장인이 조선 후기 활동했던 색난 스님이다. 스님의 대표작으로는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김해 은하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 △구례 화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을 꼽을 수 있는데, 지난 10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모두 지정됐다. 한 스님 장인의 대표작들이 일괄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관심은 대형 전시로도 이어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내년 3월 6일까지 기획전실에서 '조선의 승려 장인'을 주제로 특별전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국내외 27개 기관과 15개 사찰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국보 2건, 보물 13건, 시도유형문화재 5건 등 총 145건을 출품하는 대규모의 조선시대 불교미술전이다. 전시된 작품의 제작에 관여한 승려 장인은 모두 366명이다.

문화재 보존과 고승 기록을 DB화하는 사업도 잇달아 추진됐다. 문화재청은 2025년까지 총 713억 원을 투입해 전국의 모든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약 4000여 건(종이류 등 제외)에 대한 3차원(이하 3D)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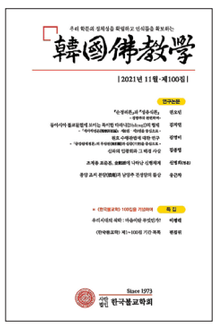
사업의 성과물은 지진, 태풍, 산불, 방화 등 재난·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시 원형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구 보존된다. 또한 현실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정확하게 디지털로 재현할 수 있어 실감콘텐츠 제작, 비대면 교육·관광, 웹툰·게임·영화·전시·디자인 등 문화산업 원천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퇴옹 성철(退翁性徹, 1912~1993) 스님의 자료가 DB화돼 세상에 소개되기도 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지난 5월 성철 스님이 소장했던 고문헌 중 주요 문헌 120종을 DB화해 도록으로 발간했다.

올해 내내 코로나19로 불교계 학술대회가 주춤했지만 고승들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지속됐다. 지난 4월에는 오대산 고승인 만화 희찬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으며, 6월에는 대행선연구원 개원 5주년을 맞아 대행선사의 수행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나옹선사의 법맥과 여말선초 송광사의 위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도 6월에 개최됐다. 올해 열반 50주년을 맞은 청담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는 지난 11월에 열렸다.

'한국불교학' 통권 100호 '금자탑'

韓불교학회 11월 30일 발간해
교리·역사·응용 등 논문에
한국불교학 발전 견인 이끌어



(사)한국불교학회(학회장 고영섭)의 학회지 〈한국불교학〉이 통권 100호 금자탑을 쌓았다. 지난 1973년 학회 출범한 이래 약 48년만의 경사다.

〈한국불교학〉은 학회 창립 3년이 되는 1975년 창간됐다. 제호인 '한국불교학'은 '낭공대사 백월서운탑비'에서 집자한 신라 김생(金生) 서체에서 따왔다. 2006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등재학술지로 발돋움하기도 했다.

〈한국불교학〉 제100집까지 불교교학, 불교사학, 불교응용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담론들을 던졌다. 특히 시대 과제와 불교 사상을 접목해 고민하는 기획들이 눈길을 끈다. 2007년 8월 발간된 제48집에는 '불교와 젠더'를 다뤄 화제가 됐으며, 2010년 제58집에는 서구불교 운동의 문화사적 조명, 2011년 제60집에는 불교의 평화사상과 소통, 2017년 제82집에는 원효 탄신 1400년 특집 등을 다뤘다. 또한 2017년 제84~85호에 걸쳐 4차산업혁명과 불교의 접점을 모색하는 특집을 다뤄 대내외의 이목을 끌었다.

고영섭 한국불교학회장은 권두언에서 "학회 창립 반세기를 앞두고 〈한국불교학〉 제100집을 발간했다. 하나의 생명체가 100년을 사는 일이 드문 것처럼 하나의 학술지가 100집까지 발간되는 일은 희유한 일"이라면서 "이것은 우리 인문학계의 경사이자 불교학계의 경사"라고 밝혔다.

이어 "년 4회 발간되는 〈한국불교학〉은 인문불교학의 최고 학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한국불교학〉이 인문학자, 불교학자들이 펼쳐내는 '인문학 불교학의 르네상스' 즉 '문예부흥의 개화와 결실'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되기를 발원해 본다. 아울러 제200집을 향해 나아가는 큰 바릿대가 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통권 100호에는 특집으로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의 '마음이란 무엇인가'가 수록됐으며, △〈순정리론〉과 〈성유식론〉(권오민) △동아시아 불교문헌에 보이는 특이한 다라니 형태(김지연) △원효 수행관법에 대한 연구(김영미) △신라의 인왕회와 그 배경 사상(김종명) △조계종 표준본 금강경에 나타난 신행체계(정운 스님) 등의 연구논문이 게재됐다.

신성민 기자

"매월당 고려 점다법 고집…동아시아 차역사 큰 봉우리"

12월17일 천태종 삼룡사서 '초암차법 학술대회' 개최

대한불교천태종 종의회 의장이자 서울 삼룡사 주지인 무원 스님이 초암차(草庵茶)의 원류를 밝히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무원 스님은 12월 17일 오후 2시 삼룡사 지관전서 조선시대 사상가이자 지조의 대명사로 꼽히는 매월당(梅月堂) 김시습(1435~1493)의 '초암차의 재발견'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차 행법 연구모임인 부산 숙우회(회장 강수길)가 일본에 초암차를 전한 김시습의 초암차법을 시연하고, 경북 안동 전통예절진흥회(이사장 최옥자)가 전다법을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행다 시연에 이어 매월당 초암차법이 한국과 일본의 차문화사에 끼친 영향, 동아시아 다도사에서 매월당 초암차 연구, 조선차사서 차지한 매월당의 위치 등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국제선차문화연구회 최석환 회장은 '고려의 점다법을 중흥시킨 매월당 초암차법의 국제적 위상'을 주제로한 발표를 통해 "매월당의 초암차법이 점다법인가 전다법인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매월당문집〉에 수록된 차시에서 점다법임이 밝혀졌다"며 "조선이 개국하면서 잎차문화로 변화됐는데 매월당은 고려의 점다법을 고집, 말차도 초암차법을 실천해 갔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정간 매월다암연구원장은 '동아시아 다도사에 있어서 매월당 초암차 연구의 가치'를 주제로 한 논문서 "15~16세기 조선의 매월당에 의해 창시된 초암차 탄생 배경과 일본으로 이전 및 수용된 루트 연구는 40년 동안 다수의 학문적 업적으로 축적되었다"며 "동아시아 다도사적 관점서 보면 매월당의 초암차 연구 가치는 중세 한차문명의 새로운 학술분야 개척과 맞먹을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정진 문화인류학자는 '조선 차역사서 차지하는 매월당의 위치'를 주제로 한 논문에서 "한국 차문화 논의의 중심을 다산-초의-추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는 차의 역사를 잘라먹는 일"이라며 "매월당을 부각하는 일은 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며, 식민주의 틀을 깨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한 강릉 김씨 후손인 무원 스님은 "신라 고승인 무상선사가 당나라에서 선차(禪茶)를 창시했고, 조선시대 학자인 매월당이 이를 한차 즉, 초암차로 발전시켰고, 일본이 자랑하는 와비차로 만들어졌다"며 "김시습의 청빈한 생애와 절개를 계승하는 한편 한국 차문화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습의 초암차법을 시연하는 장면.

김주일 기자

겨울철
나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불기 2566(2022)년 임인년(壬寅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축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축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6(2022)년 임인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16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마감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jabi2018@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